

표준화 소식

ITU 조직
개혁의 방향과
일본의 대응
— 표준화 관계 —

머릿글

ITU 의 조직검토에 앞서, 1988년 멜버른에서의 CCITT총회에서 멜버른정신(총회결의17)이 결의됐다. 이것이 어떤 배경으로 생겼는가는, 당시, 표준화와는 관계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지만, 이 결의의 중요성은 현재의 CCITT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결의는 CCITT 특별위원회 및 지역간 표준화 회의라는 두가지 측면에 인용되었다. CCITT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방침에 따라 검토과제를 정리하고, 지역간 표준화 회의는 멜버른 정신을 구현화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발족하였다.

이 원고에는 현재의 표준화 활동 과제와 멜버른 정신으로부터 시작된 표준화기구의 변혁에 관한 사건을 기술한다.

이 글은 NTT 기술정보센터에서 "ITU저널"이 기고한 글을 번역·게재한 것입니다.

표준화 활동의 과제

표준화 활동상의 과제로서, 작업이 지지부진하여 진행되지 않고, 표준이 일체화 하지 않는 불만이 자주 들려왔다.

작업의 효율화에는 운영상의 문제와, 표준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표준화 활동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운영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HLC report, Ad-hoc report로 널리 일반에 알려졌으므로, 여기서는 다른 문제에 관해 기술한다.

표준화 활동은 공공을 위한 Voluntary 활동으로 일컬어진다. 표준화 활동에 몰두하지 않고, 활동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잘 보이지만, 당사 NTT의 표준화 활동의 자원도 CCITT책의 page수에 비례하여 증대하고 있다.

기업의 귀중한 인재를 voluntary 활동에 참가시키고, 이것을 무제한 허용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어느 곳을 찾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무언가 이득이 있어서 참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Image-up을 위해 기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當社와 같은 통신사업자로서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User, 망 Interface의

표준화는 고객들이 Network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고, 또 활동을 통하여 모든 외국의 동향 파악, 기기조달에 관한 정보등을 얻을 수 있는 merit는 크다.

또한,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자사제품의 표준화 혹은 자사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 기술개발의 방향설정등, 더욱 더 큰 merit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화 활동은 반드시 기업의 확대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에서 진술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불만에 관해서 좀 더 고찰해보겠다.

우선, 작업이 지지부진하여 진행되지 않는 것에 불만의 원인이 있지만, 표준화 기술의 고도화, 범위의 확대에 따른 작업량의 증대를 들 수 있다.

Network의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표준화 작업량은 자연적으로 증대되지만 현재의 표준화 과제가 진실로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에 맞추어 설정되어 있는가에 관해서, 얼마간의 의문이 있다.

전기통신에 경쟁이 도입되고, 6년을 경과하려 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은, 현재 요금경쟁으로 끝나고 있다. 요금은 경쟁의 중요한 point지만, 전기통신 자

유화의 목적은, 경쟁에 의한 다양한 service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service로 경쟁을 전개한다고 해서, 모든 service menu에 대한 interface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service에 관한 표준화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한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IN, UPT, TMN에 관해서는 신중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또한, 단말기의 표준화에 관해서도, 전체의 기능을 표준화 하면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능의 상호 접속성은 보장할 필요는 있겠지만, 다양한 Option은 경쟁에 맡기어, 시장에서 결정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대로 진행하여 표준화함으로써, 고객의 의견을 막아버리어 공급자가 교만하다고 비난받을 사태도 생길 수도 있다.

앞으로의, 전기통신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표준화 영역이 확대되어 갈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정할 표준화 과제는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밀 검토가 필요하며, 무언가의 guideline이 필요하다.

다음에, 표준이 일체화 되어질 수 없는 원인에 관해 생각해 보자.

표준화 시기와 service 개발, 기술개발 시기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이것에 큰 영향을 준다. service후의 표준화는, 통신사업자, maker로서는 표준작성시의 규격변경을 의미하며, 결과로서, 표준에 서비스 혹은 기기를 통합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따라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하여, 경영자로서는 이를 요금에 전가하게 되고 고객로서는,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된다.

표준과 개발이 동시진행이 이것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세계의 주요통신사업자 혹은 제조업자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이외에 이것을 실현할 수단이 없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은 끝이 없으므로, 항상 규격변경의 risk를 안으면서, service 개발시기에 맞추어, 진행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또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업소유권 문제가 지적되어지고 있다. 공업소유권을 포기하고, 이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시장이 성숙된 후, 대가를 요구하려는 기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기업은 비난의 표적

이 될 수 있지만, 이 전략에 대항하려면,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따라 표준화를 행하는 일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것이 표준의 조기작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표준화의 효율화를 논하면서, 이 일을 언급하려는 것은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표준화는 각각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으로,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효율개선의 방향

현재, ITU-CCITT-CCIR에서 검토되고 있는 개혁안은, 조직이나 작업방법의 개선이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ISDN에 의한 다양한 Service의 제공, B-ISDN의 실현, 퍼스널 통신의 도입등 앞으로 하지않으면 안되는 표준화 항목에 대해서, 효율측면에서의 큰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표준화와 무대는 넓게 개방되어 있고, 그 과제 하나하나에 上述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上述한 표준화 활동의 과제에 관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다만, 다소의 개선을 도모한다면, member를 정예화하여 초안작성작업을 효율화하는 것일 것이다.

UNIX는 세계를 석권했으나, 이것은 표준화기관에서 토의하고, 표준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회사가 선도적으로 일을 한 결과였으며, 시장이 선택할 결과였다. 또한, OSI/NM forum에는, Network 관리에 관한 기능 표준안을 많은 표준화 기관과 연락을 취하면서 작성하고 있다. 기업 base의 활동에서는, 하나의 기업의 탁월한 기술(적당한 대가의 특허가 전제이지만)의 표준화, 소 그룹의 정력적인 활동에 기대가 된다.

현재의 전기통신의 세계에는 특출한 기업은 없으며, 많은 기업들이 각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형태로 표준안을 만드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리하여, 표준화의 범위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 움직임은 TTC(日), TI(美), ETSI(歐)에 의한 지역간 표준화 회의와 동일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 당초 TTC는 여기에 down-stream의 입장으로 참가했지만, 작년

여름 up-stream 활동을 그 역할에 추가하고, 지역간 표준화 회의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전과다름없이 일본의 표준화 기관으로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타기관(ETIS : 유럽 TI : 북미)에 대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불리가 해소될 전망은 현시점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TTC는 이러한 불리를 극복하기 위해, 이 회의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도 표준화 활동을 효율화하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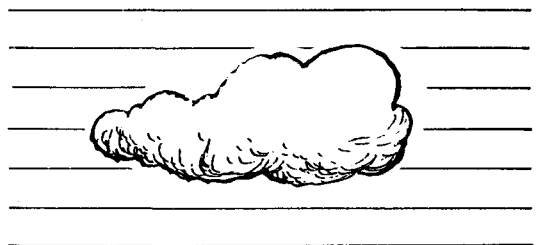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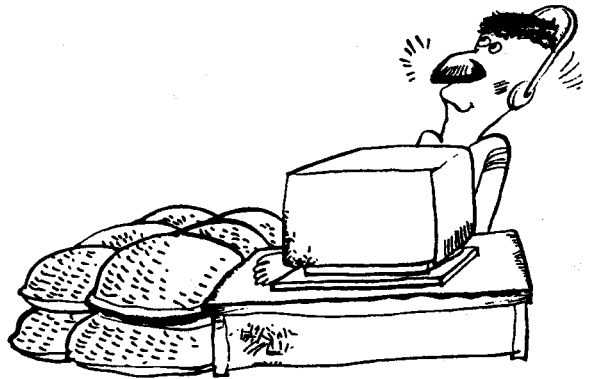
비공식적인 협상에 의한 日, 美, 歐의 3국 합의를 끌어내어, 기기를 제조하고, service를 개시하며, ITU의 표준화 부문은 이것을 추인한다. 이것은 CCITT의 “일머” 위원장이 지역간 표준화 회의 시작시에 언급한 하나의 예이지만, 국제표준화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 지역·국내표준화 기관과 ITU의 표준화 부문등 두가지의 표준화의 무대가 생기게 된다.

ISO/IEC/JTC1, CCITT, ITSC와 같은 표준화 항목, 기술의 검토가 각각 시작되어, 효율화는 아무것도 향상되지 않는 위험도

있다. 표준화기관 상호간의 작업의 중복은 피해야 하므로, 각 기관 상호의 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들 기관의 상호협조, 역할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HLC에서도, CCITT 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행해지지 않고, 또 지역간 표준화 회의도 아직 방향을 찾고 있는 상황에 있다. 어떤 표준화 회의에서 무엇을 분담할 것인가를 포함해, 여기에 열거한 과제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 표준화 부문에 생기는 자문그룹 또는 지역간 표준화 회의 등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



맺음말

19 92년 11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지역 간 표준화 회의, 12월의 임시 전권위원회회의, CCITT Ad-hoc 회의, 1993년 3월의 CCITT 총회와 앞으로 중요한 회의가 계속 있다. ITU의 모든 회의에는 남북문제도 있으며, HLC 권고의 조약에의 반영, Ad-hoc Group report에 따른 CCITT 결의의 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ITU의 조직개혁은 국제표준화 활동 개선의 제1보로,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여기에 언급한 과제에 대해서도, 각 표준화 기관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땀비린 정신인 근대화, 유연성, 효율성, 협조의 정신으로 방향을 잡기를 기대한다.